

베트남 화인의 귀환이주와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최 호 림**

I. 서론

1986년 도이 머이(*đổi mới*, 쇄신) 정책 시행 이후 베트남에 돌아오는 해외 베트남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단순히 일시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구해서 귀국하는 경우와 은퇴하여 귀국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이다. 베트남 정부는 2000년대 이후 해외 베트남인 공동체로부터 더욱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소위 ‘전문적 자원들’을 끌어오기 위해 혜택을 부여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베트남 교포에게 직접 사업등록을 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권리를 부여한 것과 5년간 입국비자 면제 조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귀국자들 중에는 중국계 베트남인들이 많다. 1970~80년대 베트남을 빠져나간 난민들 중에 중국계 베트남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람세스 에이머(Ramses Amer)가 인도차이나 보트 피플의 문제와 관련하여 ‘화인의 차원(ethnic Chinese dimension)’이라 일컬었던 것이다(Amer 2011).

베트남 난민 중에 ‘호아(*Hoa*) 난민’ 즉, 화인 출신 난민에 관한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15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hrchoivn@hanmail.net

이야기는 이미 4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것이지만 비교적 최근에 와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최호림 2015: 119-122; Chan 2013). 베트남 화인들이 베트남에 정착한 지 이미 여러 세대가 지났고 전쟁과 난민의 역사를 겪으면서 이들의 정체성이 중국인 디아스포라 혹은 베트남인 디아스포라 중 어느 한 곳에 온전히 포함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들이 최근에 ‘비엠키우’(*Việt Kiều*), 즉 베트남 해외동포로서 베트남에 귀환하는 현상으로 인해 그들의 정체성이 매우 흥미로운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비엠키우’(*Việt*)은 현재 54개의 종족으로 구분되는 분류체계에 따라 인구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종족인 ‘깡’(*Kinh*)족을 가리키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최호림 2012), 종족적 배경이나 종족 소속감이 무엇이든 귀국하면 모두 비엠키우로 간주된다.

베트남 귀환 화인과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이들의 정체성의 복합성과 유동성이다. 30여 년 전 베트남을 떠날 때에 그들은 ‘호아끼우’(*Hoa Kiều*, 화교) 혹은 ‘호아’(*Hoa*)로 불렸으나, 지난 20년 동안 그들이 귀국 러시를 이루는 동안에 그들은 대부분 ‘비엠키우’ 또는 또는 ‘비엠키우’(*Việt Báo*), 즉 ‘베트남 동포’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달라진 이름표는 베트남 사회의 이들에 대한 시기에 따른 인식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들이 1970년대에 겪었던 삶과 고통의 경험에 대해서도 지금 베트남 사회의 인식은 이전과 다르다. 그럼에도 ‘호아끼우’는 1975년 통일 이전과 유사하게 부정적 낙인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비엠키우’는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모든 베트남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널리 유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이공 함락 전후에 베트남을 떠난 ‘중국계 베트남인’에 대한 것이다. 베트남 소수종족과 베트남 난민에 대한 무수한 연구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인 난민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또

한 해외 중국인 혹은 화인 디아스포라에 관한 연구는 다수 축적되어 왔으나 귀환이주 혹은 재순환이주를 경험한 화인에 관한 연구는 흔하지 않다. 한국에서 베트남 화인에 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김현재 2010, 2012; 전경수 1998; 최병욱 2000; 하순 1998).¹⁾ 그러나 대부분 중국인의 베트남 이주 및 정착 과정에 관한 역사적 연구로서 사료나 간접적인 연구 자료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고 있다. 베트남 난민의 발생 역사를 (탈)식민시기와 전쟁 전후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하면서 최근의 귀환 난민 현상을 일부 언급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나(최호림 2015), 귀환 화인 난민의 구체적인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 정체성의 변화를 다룬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난민으로 떠났던 베트남 화인들이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오거나 재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인식한 바에 초점을 두고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변화 과정과 귀환이주의 역동성을 고찰한 것으로서 선행연구의 공백을 일부 채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문헌연구와 귀환 화인 난민과의 인터뷰이다. 필자는 2014~15년 기간 세 차례 베트남을 방문하여 ‘비엠키우’ 단체를 찾아 면담하고, 10여 명의 귀국한 화인 난민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전쟁 전후 시기에도 난민으로 이주하지 않고 호치민시와 하노이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화인들도 일부 만나 면접하였다. 2004년 초 필자가 베트남을 방문하였을 때 뗏을 앞두고 한창 창립대회를 준비하던 ‘해외 호아 비엠키우 비즈니스협회 호치민시 지회(Chi hoi doanh nghiep Viet kieu nguoi Hoa)’를 통해 베트남 해외동포의 귀국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10년 후 다시 이 연구를 시작하였을 때 이 단체를 통해 귀환

1) 베트남 이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각국의 화인에 관한 연구는 다수 축적되었으나 본 연구의 초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연구의 검토에서 제외하였음.

화인들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아래 <표 1>은 본문에서 언급된 면접자 목록이다.

<표 1> 귀환 베트남 귀환 화인 면접자 목록

이름(가명)	성별/생년	베트남 고향	탈출시기/사유	정착-출발지	귀환년도
Tho	남/1959	사이공	1975-밀항	홍콩-캐나다	2001
Lam	남/1949	사이공	1972-밀항	홍콩-광저우	1989
Xuan	남/1957	찌런	1981-난민	대만	1996
Trung	남/1952	사이공	1974-유학 후 망명	대만-미국	1994
Pham	남/미상	찌런	1981-난민	태국-독일	2007
Lieu	여/미상	북부	1978-79	미상	1998

귀환 비엠키우 중에는 홍콩, 대만 등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유럽이나 북미 국가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다. 2004년에 귀환한 일부 화인 비엠키우 사업가들이 여타 사업가들과 함께 ‘해외 호아 비엠키우 비즈니스협회 호치민시 지회’를 결성하였다. 이것은 ‘해외베트남 인비즈니스협회(Overseas Vietnamese Business Association)’ 소속의 한 지회로 결성된 것이었다. 이 협회가 결성된 것은 ‘호아 비엠키우’들이 자신을 베트남인 비엠키우 사업가나 여타 홍콩이나 대만 출신 화인 사업가와 구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베트남에는 이 호아비엠키우사업가협회 외에도 ‘홍콩비즈니스베트남협회’, ‘중국비즈니스협회’, ‘대만비즈니스협회’ 등 최소한 세 개의 서로 다른 화인비즈니스협회가 있다(Chan 2013: 539). 이러한 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실제 캐나다 미국, 프랑스, 홍콩, 대만 등 서로 다른 국가에서 살다고 온 사람들이었다. 해외 호아 비엠키우 비즈니스협회 호치민시 지회는 설립 후 첫 몇 년 동안 100여 명의 회원이 있었다. 회원 중에는 최근에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Spratly)군도와 파라셀(Paracel)군도의 영해권을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의 외교적 마찰로 인

해 협회의 활동이 이전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회원 수도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본문에서 먼저 베트남 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간략하게 검토하고 ‘혼종 디아스포라’와 ‘귀환이주’ 개념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동남아 화인 이주정착의 역사를 살펴보고 베트남 화인 난민의 탈출과 이주과정을 고찰하겠다. 셋째로는 귀환 화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들의 복수의 이주 경험과 정체성 변환에 관한 인식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IV장에서 기술된 귀환 화인의 사례에 대한 연구자의 분석은 결론 부분에 기술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하순(1998)의 연구는 한국 학자에 의한 화인 디아스포라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특히 화인 종족성(ethnicity)의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 저자는 베트남 화인들이 자원 획득 경쟁에서 타종족 집단보다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그들의 종족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였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다수 종족인 비엣족과 동화보다 분리 혹은 대립 상태에 놓이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전경수(1998)의 연구는 베트남 화인은 원주민으로서 소수민족이 아니라 ‘월경소수민족’으로 취업 혹은 경제적 활동이 이주의 주요 동기라고 보았다. 원주소수민족들이 주로 근원주의적 종족정체성을 지니는 반면에 베트남 화인은 주류사회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응하며 살아왔다고 분석하였다. 전경수의 연구는 결과적으로 베트남 화인의 정체성이 필요에 따라 유동적이고 도구적인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을 함축하는 것이다. 김현재(2010)도 베트남 화인사회

의 형성과정과 역할을 고대 북속시대에서 도이머이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살펴보면서 전경수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의 분석을 하였다. 즉, 베트남 화인사회는 경제적 이주로 인해 형성된 공동체로서 베트남에서 정치적 사회적 입지가 취약했기 때문에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베트남 지배세력과 공생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지배력으로 인해 토착사회에서 반(反)화인 감정을 심어주었고 자신의 운명을 베트남 지배세력에 내맡길 수밖에 없는 영원한 이방인 집단이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최병욱(2000)은 18세기 내내 사이공을 중심으로 강력한 경제력을 구축해 가던 화인들이 19세기 초에 사이공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대외 교역을 주도하면서 전성기를 맞게 되었던 역사적 과정과 함께, 19세기 전반 이주 화인들에 대한 베트남 조정의 강력한 동화정책, 그리고 19세기 중반 남부 베트남의 대외교역과 베트남 상인층의 성장에 따른 화인사회의 변화를 다루었다. 김현재의 보다 최근의 연구(2012)는 베트남 남부의 사이공, 동나이, 미토, 하띠엔 등 차이나타운들의 개발과 형성 초기인 17세기부터 19세기 초 기간을 중심으로 화인의 이주와 그로 인한 사이공의 형성과정의 정치, 경제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이와 같이 대개의 연구들이 베트남 화인들이 이주하여 베트남 토착사회에 정착하는 적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종족성과 화인의 경제적 위상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더구나 기존 연구들 중에 김현재(2010)의 논문 일부분에서 언급된 내용을 제외하고 베트남 전쟁과 도이머이 이후의 이주 및 귀환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희소하다. 반면에, 최호림(2015)은 보트피플 발생의 역사적 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베트남 난민의 종족적 구성이 복합적이었으며, 특히 1979년 이후 베트남을 떠난 화인 난민을 비롯한 보트피플의 귀환 현상이 이러한 종족성의 문제를 더욱 역동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만들었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 줄고에서 제기한 문제의

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종족성의 역동성에서 더 나아가 정체성의 초국가적인 유동성과 혼종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초국가적 현상이나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글로벌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관심도 증대하였다(Vertovec 2009). 트랜스내셔널리즘은 흔히 ‘사람, 아이디어, 상품, 자본이 국가의 영토를 넘나드는 흐름’으로 정의되고, 디아스포라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민족국가에서 다른 민족국가로의 강제적 또는 자발적인 사람의 이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인다(Braziel and Mannur 2003: 8). 비록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원래 유태인의 탈출이나 이산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지만, 지금은 대개 모든 이주민 집단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반드시 부정적인 함의를 갖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해당 디아스포라를 하나의 단일한 종족적 토대를 지닌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구상의 많은 이주민들은 세대를 지나면서 여러 국가 여러 지역을 거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고국’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부모나 조상의 고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혼종 디아스포라(hybrid diaspora)’ 개념은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 거주하는 흑인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슈발론은 아메리카 흑인 사회 다수의 사람들과 그들의 사회적 경험에 관한 연구를 통해 디아스포라의 문화적 재생산이라는 의미에서 혼종성을 강조하는 연구를 했다(Chivallon 2011; Chan 2013: 526 재인용). 길로이도 흑인 디아스포라의 혼종 정체성에 관해 연구했다. 그는 영국, 미국, 아프리카, 카리브해 등의 흑인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형태의 정체성과 무권력 상태에 대한 공통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블랙 아틀란틱(Black Atlantic)’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Gilroy 1997). ‘혼종 디아스포라’는 연속적인 이동의 경험과 과정에서 정체

성과 소속감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재구성되고 변동하게 되는 현상에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 연구를 위해 필자가 만난 사람들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홍콩, 일본, 대만 등 서로 다른 나라의 여권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정체성’의 차원에는 중국인, 화교, 화인, 베트남인 혹은 ‘베트남 해외동포’ 중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범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본 연구는 특히 베트남에서 수 세대 거주한 화인출신 난민의 탈출 또는 이주와 재이주, 그리고 귀환의 과정에 주목하여 이들의 혼종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의 변환을 탐구한다.

혼종 디아스포라 정체성이 대개 복수의 이주 경험 혹은 순환적 이주와 재이주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관찰되며, ‘귀환이주’도 혼종 디아스포라 정체성 구성의 주요 과정 중 하나이다. ‘귀환이주’에 관한 연구는 이미 1980년대에 발표되기 시작하였고(King ed. 1986 참조), 최근에는 특히 재순환 형태의 이주(recycled forms of migration)가 여타의 순환적·반복적 이주와 함께 점차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Potter 2005; Seol and Skrenty 2009). 오늘날 많은 이주민들이 일생 동안 복합적인 이주에 참여하여 그들의 정체성은 서로 다른 단계들에서 서로 다른 지리적인 공간과 고향에 대한 상상, 다면적인 이동 경로, 그리고 변화되는 소속감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복합적인 이주자의 삶은 어떤 한 가지 단일한 종족에 천착하는 디아스포라의 경험보다 복잡한 것이 틀림없다. 또한 이들의 ‘귀환이주’가 영구적 귀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재순환 이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체성의 초국가성과 혼종성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역사적으로도 해외 중국인을 일컫는 개념과 스스로의 정체성 또한 매우 복잡한 양상을 지녀 왔다. 무엇보다도 오래 전부터 해외 중국인(Overseas Chinese)을 ‘화교(華僑, *huaqiao*)’라고 불렀다. 원래 이것은 중국 국적인으로 일시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거주하는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한 중국인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의미의 화교는 중국 영토 밖의 중국인 대다수를 가리키기에 적절한 용어가 되지 못하게 되었다. 1980년 이후에는 ‘화인(華人, *huaren*)’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 종족(ethnic Chinese)’이라는 의미로서, 주로 중국 시민권을 갖지 않는 해외 거주 중국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여러 종족 중 하나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중국 본토에서는 종종 두 용어를 함께 붙여서 ‘화교화인(華僑華人, *huaqiao huaren*)’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중국(PRC)의 시민권을 가진 중국인과 외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을 모두 가리키는 것이다(Suryadinata 2007: 2). 또한 ‘화예(華裔, *huayi*)’라는 용어도 종종 사용되었는데, 이는 중국인 혈통의 후손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중국 토착 출신이거나 중국인 혼혈 출신으로서 중국 외부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화인’과 ‘화예’는 동남아 중국인이 만든 개념이다. 중국 본토의 학자가 이 용어들을 사용할 때는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Suryadinata 2007: 3). 가령, 화인은 국적에 상관없이 중국 외부에 거주하는 중국의 관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인을 가리키고, 화예는 중국이나 대만 어느 쪽의 시민권도 갖지 않은 중국인을 가리킬 때 쓰인다. 이주 정착민 또는 이들의 후손이자 소수 종족으로서 중국인, 즉 ‘ethnic Chinese’를 통칭하는 용어로는 화인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²⁾

본문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와 이론적 개념을 참고하여 탈출, (재)이주, 귀환의 복합적인 역사적 과정과 이를 경험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베트남 화인 난민의 정체성 변화를 해석하고자 한다.

2) 동남아 각국의 중국인 이주역사에 관해서는 조홍국(2005), Suryadinata(2007) 등 참조

Ⅲ. 동남아 화인과 베트남 화인 난민의 이주

1. 동남아의 화인

중국인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주민 중 하나였고 지금도 이러한 위상은 지속되고 있다. 남양(南洋) 무역이 번성한 10세기경부터 이미 중국인의 동남아 이주가 본격화되었고, 특히 교역상과 전문 선원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많은 화인들이 동남아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Wang 1959). 19세기는 중국인의 동남아 이주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났다. 이 시기 이주자는 대부분 노동자, 소상인이거나, 식민지배자의 통상을 중개하는 중간상인들이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동남아에 이주 정착한 화인들의 경제적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는 무수히 발표되었다(Chan 2013: 535). 화인은 경제적 측면에서 성공한 대표적 디아스포라로서 주목받아 왔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화인사회는 출신지와 방언을 공유하는 동향(同鄉)조직을 중심으로 상호부조는 물론, 밀도 높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등 경제 집단으로서 강한 특징을 띠고 있다(김현재 2012: 102). 동남아 도처의 수많은 차이나타운들 중에서도 특히 사이공은 특히 이주 화인에 의해 세워진 차이나타운 쩌런(Chợ Lớn)에서 시작되어 베트남 최대 경제중심지로 성장한 도시이다. 특히 17~19세기 초 기간 중 베트남의 남부 사이공을 비롯한 인근 동나이(Đồng Nai), 미토(Mỹ Tho), 하띠엔(Hà Tiên) 등지로 이주한 화인들은 모두 차이나타운을 개발함은 물론, 베트남의 남진(南進) 즉, 남부로의 영토 확장에도 큰 기여를 했다(김현재 2012: 102-103). 20세기 초 베트남에는 약 117,000명의 화인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는 1921년 195,000명, 1931년 267,000명으로 증가하였다. 1937~43년 일본의 중국 침략기 동안 베트남의 화인 인구는 더욱 급증하였다. 대부분 사이공 항구를 통해

베트남에 입국했다. 1937~39년 동안에만 약 4만 명의 새로운 중국인 이주자가 도착하였다. 1943년 베트남의 화인은 466,000명으로 증가하였고, 1954년에는 600,000명에서 750,000명 사이로 추정되었다. 이들 중 약 80%가 남부에 거주하였다(Chan 2013: 535; Tran 2001: 59).

현재 중국 영토 밖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을 헤아린다. 이 중에 60% 가량이 동남아시아에 거주한다. 1980년대 초만 해도 해외 거주 중국인(약 2,300만 명)의 80%가 동남아에 거주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점차 유럽, 북미, 중남미 등 다른 지역 국가에 정착한 중국인이 증가하게 되면서 동남아 거주 중국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각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비중은 여전히 매우 높다. 싱가포르의 경우 중국인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며,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화인들은 미국이나 러시아 거주 중국인보다 훨씬 많다. 아래 <표 2>에서 나타나는 인구 규모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남아 각국의 사회·문화와 정치·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인의 이주와 화인 사회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표 2> 동남아(ASEAN 10국) 각국의 화인 인구 및 비율(1981년/2012년)

국가	1981년 (Suryadinata 1987)		2012년 (추정치)	
	인구	비율	인구	비율
Singapore	1,856.2	76.9%	2,547.3	55.0%
Malaysia	12,736.6	33.1%	6,960.9	24.0%
Thailand	6,000.0	13.0%	9,392.8	14.7%
Indonesia	4,116.0	2.8%	2,832.5	1.1%
Vietnam	1,000.0	1.9%	970.9	1.05%
The Philippines	699.0	1.5%	1,350.0	1.3%
Myanmar	466.0	1.4%	1,637.5	3.3%
Cambodia	n.a.	n.a.	782.6	5.0%
Laos	n.a.	n.a.	190.0	2.9%
Brunei	54.2	25.4%	60~70	11~15%
Total	18,405.7	5.2%	26,730.0	4.4%

출처: 최호림(2016: 58); Suryadinata(1987: 135); “Overseas Chinese” https://en.wikipedia.org/wiki/Overseas_Chinese (검색일: 2015.11.02)

중국인 이주민들이 동남아 각국의 문화에 적응하여 현지화 된 정도는 국가마다 다양하다. 대부분의 동남아 화인들은 완전히 현지문화에 동화되지도 전적으로 현지 사람들로 부터 격리되어 생활하지도 않는다. 동남아 화인들은 다수 종족과 화인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화인들 사이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구별되는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Tan 2004). 고슬링은 동남아의 화인들이 “적응에서 다양한 수준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며 다양하게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도저도 아닌 중간자적 화인(intermediate Chinese)”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Gosling 1983: 2). ‘중간자적 화인’은 현지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상황이 허락하면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움켜쥔다는 의미에서이다. “중국과 (동남아) 토착 문화의 요소를 혼합함으로써 상황의 요구에 따라서 광범위한 중간자적 정체성이 창출된다. 동남아 화인들 사이에는 상황적 정체성(situational identity)이 살아 있고 잘 지낸다”(Gosling 1983: 3). 그러나 실제 ‘중간자적 화인’은 종종 동남아인들의 냉소적인 시선에 부딪혀왔다. 그들의 이중적 정체성으로 인해 이중적인 충성심이 항상 잠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1950년대 말, 미국 예일대학교의 사회학자 커글린(Richard J. Coughlin)교수는 태국의 ‘중국인 문제’(Chinese problem)를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바 있다. 첫째는 경제적 문제로, 중국인들은 태국 주요 도시에서의 상업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의 상당한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인들이 태국 인구의 상당 부분을 점한다는 인구학적 문제다. 중국인은 지속적으로 태국 인구의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경제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 더하여, 태국의 ‘중국인 문제’는 동화 및 통합 문제를 포함한다. 화인들은 자신 혹은 선조의

고향인 중국에서 유래한 언어, 의식주, 종교 및 신앙, 인간관계의 방식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 등 독특한 문화와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 점 때문에 화인들의 현지 사회로의 동화 및 통합은 항상 문제시되어 왔다. 경제력, 인구 점유율, 동화 및 통합의 어려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되는 이러한 중국인 문제는 다소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확인된다(조흥국 2005).

이와 같이 동남아 중국인들은 흔히 종종 오직 중국어만 구사하며 현지 사회에 통합되지 않았고, 정치적이거나 문화적으로 중국을 지향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들이 중국과 연계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으로 인해 동남아 각국의 토착 지도자들은 이들을 안보의 위협요소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1980년대 초까지 동남아의 비공산권 국가들에서 흔히 중국인들은 공산주의자로 간주되었다. 반면에 베트남과 같은 공산국가의 경우 화인들은 부르주아 자본주의자로 취급되었다. 또한 중국인들은 정착 국가에서 경제 발전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기도 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들이 현지 경제에서 갖는 중요한 역할 때문이었다. 소수집단이지만 특히 상업과 무역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그들은 매우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집단으로 비추어졌다. 동남아에서 중국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관점은 이들이 동남아 경제를 지배하기 때문에 토착의 경제적 민족주의에 도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었다(최호림 2016: 59-60). 이와 같이 ‘변함없는 중국인’ 인식, 중국 본토와의 연계성, 경제적 지배력 등이 인구 규모와 함께 대개의 동남아 국가들에서 소위 중국인 문제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동남아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은 진정한 동질적인 집단인가, 실제로 거주 국가에서 경제를 지배하는가, 이들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항상 중국을 지향하고 있는가 등의 의문이 남아 있다.

땀(Tan)은 동남아시아 화인들이 중국문화와 중국인 정체성을 지속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중국적인 것에 동남아적인 요소를 더하는 혼종(hybridity)은 해외 중국인(화교)들이 중국을 만나거나 또는 다른 동남아국가 출신의 화인들과 상호작용하도록 해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Tan 2004: 27). 해외 중국인들의 경험에는 엄청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함께 땀은 “중국인의 민족학적 현장(Chinese ethnological field)”이라는 개념으로 중국인 디아스포라 연구를 위해 보다 통일된 영역을 규정하고자 시도한다.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 동남아 각국뿐만 아니라 중국 정치경제의 거시적인 변화 또한 동남아 중국인의 정체성 변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글로벌 경제의 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해외 화교들 사이에는 재중국화(re-sinification)의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소위 “아시아의 가치(Asian Values)”라는 강력한 담론이 중국인들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증대하였다는 점을 설명해준다. ‘중국인 자본주의’(Chinese Capitalism)는 더 나아가 중국인의 경제적 권력의 재현이 창출되었다고 본다(Yeong 2004).

해외 중국인 연구와 중국인 디아스포라에 관한 저술들은 아시아와 세계에서 중국인 이주 역사와 문화적 변화들에 대한 이해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중국인 디아스포라’라는 우산 아래에서 중국인과 관련된 이주와 이주민의 경험은 모두 중국인 지향의 문화적 틀과 담론 내에 위치해왔다. 그러나 화인 비엠키우가 명확하게 중국인 디아스포라의 일부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은 또한 베트남인 디아스포라의 일부이며, 따라서 지난 수십 년간 유사한 삶의 변화를 겪어온 여타의 베트남인 이주민과 동일한 문화적 정치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2. 베트남 화인의 이주와 탈출

베트남 화인의 탈출과 재이주의 역사를 살펴보자. 사이공 함락 이전에 베트남을 탈출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대부분 젊은이들이었고 대형 화물선 화물칸에 몸을 숨겨 홍콩으로 밀항한 사람들이 다수였다. 이들 중에는 사이공과 남부의 주요 도시에서 주로 상업에 종사하던 화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젊은이들이 이렇게 몰래 탈출한 이유에는 남베트남 정부의 징병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베트남전쟁에서 점차 북부 공산주의자들의 승리가 명백해지면서 남부베트남 사람의 탈출이 본격화되기 시작되었다. 미군 비행기의 도움으로 남베트남 군대의 많은 고위 장교들이 떠났다. 군사적인 탈출 작전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항공편이나 배편을 구해 탈출했다. 이 시기 보트피플 난민들은 홍콩을 거쳐 미국이나 유럽에 정착했다. 1975년 무력통일 전후시기에 발생한 난민 탈출기에 남베트남 정부의 장교와 군인들 약 15만 명이 베트남을 탈출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그 중에 많은 수가 중국계 베트남인 장교들과 자본가 계급이었다(Haines 2011).

베트남 통일 후 부르주아적인 관행을 철폐하고 생산을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사회주의적 개혁정책을 시행되었다. 약 5만 개 소매상의 상품들을 압수하고 사기업을 폐쇄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신경제 구역(NEZs, New Economic Zones)으로 강제 이주시켰다(Li 1999). 이런 정책들은 특히 화인 커뮤니티를 타깃으로 한 것으로 느껴졌는데, 특히 중국인이 상업자본과 상업 활동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던 호치민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강제 이주 집행 과정에 이미 예상되었던 대로 신경제구역에서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결정하였다. 1976년 말까지 홍콩이나 동남아 국가들로 보트를 타고 탈출한 사람은 5,619명으로 추정되었고, 1977년 말까지

그 수는 21,276명으로 증가하였다(Amer 1991: 56).

1977년부터 79년까지 기간에 중국과 베트남의 외교관계가 악화되면서 또 다른 난민 위기가 발생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2차 보트피플 위기’(the second boat people crisis)라고 알려진 것이다. 이 시기 보트피플이 이전과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점이 바로 ‘화인 종족의 차원’이라는 문제이다. 1978년과 1979년 전반기 동안 이웃 국가들에 도착한 보트피플의 60~70%가 화인들이었기 때문이었다 (Amer 2011: 36).

1977년 베트남이 국경지방 화인 정착자들을 추방하여 국경지역을 정화하는 정책을 펴자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비난이 시작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북부의 대규모 화인 집단의 충성도에 대해 점점 더 의심을 하게 되었다(Chen 1992: 143). 많은 화인이 당이나 정부 공직에서 축출되었다. 베트남의 안보 관점에서 민감하거나 핵심적이라고 간주되는 직위는 중국인의 혈통이 섞이지 않은 베트남 사람들로 대체되었다(Amer 2011: 40). 이로 인해 1978년의 봄과 여름에 북베트남에서 화인 집단이 대규모로 중국으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화인들에 대한 외교정책의 실패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종전 후에 중국, 베트남, 소련의 공산 정권 사이에 삼각 권력투쟁이 발생했다. 1960년대 말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된 후 베트남이 점차 소련과의 관계에 의존하게 되자 중국의 입장에서 베트남이 동남아에서 더 이상 신뢰할만한 파트너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중국은 점차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을 증대시켰다. 1978년 12월 베트남이 캄보디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것이 당시 중국의 지도자 등 사오핑을 자극하여 ‘베트남에게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고 결정하게 하였다(Chen 1987). 그것은 곧 베트남 국경지역에 대한 군사 작전을 의미했다. 1978년 7월까지 약 16만 명으로 추정되는 화인 난민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왔다(Chan 2013: 529). 1978년 말 북부 국경

이 폐쇄된 후에는 더 많은 난민이 바다를 통해 빠져나갔다. 베트남 정부가 난민의 출발을 돕는 일에 개입하였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바로 ‘큰 보트 거래’(big boat trade)라는 악명으로 알려진 것이다(Haines 2011: 22). 1979년 중반까지 남부베트남에서 모두 20만 명의 난민이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Robinson 1998: 30-35).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도피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중국 국경 지역의 난민 농장에 머물다가 사망하였다. 거친 바다를 선택한 난민들은 홍콩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에 도착했으나 대부분이 서구의 제3의 국가로 가기 전에 난민 캠프에서 수개월 혹은 수년을 보내야 했다. 1981년 후에도 여전히 베트남인 난민과 화인 난민이 베트남을 떠나고 있었으나 그 수는 점차 줄어들었다. 1988년에서 1989년 사이에 세 번째 보트피플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 때는 대부분이 북부 베트남의 베트남인들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사회주의 베트남의 경제적 곤경을 피해 탈출한 것이었다(Chan 2011: 8).

두 번째 보트피플 위기의 시기 ‘화인들의 차원’의 즉각적인 효과는 호아(Hoa) 인구의 격감이었다. 쩌 카인(Tran Khanh)은 1975년 통일 전 베트남에 150만 명의 화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는데(Tran 2001: 59), 그 중에 85%가 남부 베트남에 살았다(Chan 2013: 529). 1999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보면 베트남 화인 인구는 862,371명으로 집계되었다. 과거 북부에 거주하는 화인의 대부분이 살았던 하노이와 하이퐁 시의 1999년 화인 인구는 각각 1,530명과 1,229명이었다. 반면에 호치민시 화인 인구는 428,758명으로 집계되었다(TCTK 1999). 1980~90년대에는 베트남 난민들의 극적인 경험과 무용담을 다루거나 재정착 사회에서 난민들의 적응과 통합에 관한 논의들이 번성하였다.

IV. 베트남 화인 디아스포라와 귀환이주

1. 비엠키우의 귀환

베트남에서 해외 베트남인은 공식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người Việt Nam ở nước ngoài)”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베트남어로는 비엠키우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공식어에서도 두 가지 용어가 모두 혼용되고 있다. ‘비엠킴’은 베트남사람이라는 의미이며, ‘끼우’는 ‘끼우 전’(kiều dân), 즉 교민의 축약어로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이라는 의미이다. 2012년 현재 전 세계 약 100개국에 약 4백만 명의 비엠키우가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Vietnam 2012).³⁾ 대부분 비엠키우는 서구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점차 노동, 결혼 혹은 여타의 형태로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등 여타 아시아 국가로 이주하는 베트남인이 증가하면서 해외 베트남 디아스포라에 관한 연구는 해외 베트남인의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구학적인 역동성을 계속 추적할 필요성이 크다.

‘비엠키우’ 혹은 ‘베트남인 디아스포라’는 이러한 해외 베트남인들을 모두 한 우산 아래 포함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실제 베트남 출신 이주민 중에는 서로 다른 종족집단이 참으로 많다. 종족적 차이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차이도 주목해야 한다. 비엠키우는 크게 ‘난민 비엠키우’(refugee Viet Kieu)와 ‘정부 비엠키우’(government Viet

3) 베트남 외교부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이 180만 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 베트남인 인구 규모가 10위에 속하는 국가들로는 캄보디아, 프랑스, 중국, 대만, 호주, 캐나다, 독일, 태국, 한국 등이 있다. 같은 자료에 2010년 현재 각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은 캄보디아 735,085명, 프랑스 300,000명, 중국 280,000명, 대만 190,000명, 호주 188,000명, 캐나다 180,130명, 독일 125,000명, 태국 119,000명, 한국 90,931명 등이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Vietnam 2012).

Kieu)로 구분된다는 한 연구에 공감한다(Chan and Tran 2011). 난민 비엠키우는 다시 화인 난민 디아스포라와 여타 베트남인 난민 디아스포라로 구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소위 ‘보트피플’이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하여 각각 디아스포라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난민 비엠키우는 대개 공산정권의 정치적 적으로 간주되었거나 혹은 정부의 가혹한 정책을 피하기 위해 탈출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정부 비엠키우’는 정부기관이 정책과 계획, 그리고 국제협약에 따라 근로 또는 학업을 하도록 외국에 보낸 사람들이다. 이들은 1990년대 초까지 대부분이 구 소비에트 블록 국가들로 갔다. 199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로 이주하는 새로운 이주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정부 비엠키우’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자발적인 이주가 증가하고 목적국가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분류명을 만들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된다.

2000년대 들어 보다 왕성한 경제 개혁과 비엠키우를 위한 우대장려 정책으로 인해 귀환하는 비엠키우의 수는 더욱 증가해왔다. 매년 50만 명 이상의 해외 베트남인들이 귀국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비엠키우들이 약 3,500개의 프로젝트와 기업들에 투자를 하였으며, 투자액은 모두 110억 달러(US\$)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VNA 2012). 해외베트남인의 귀환투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는 긍정적인 정치적 담론과 정책을 패키지처럼 엮어서 이를 통해 해외 베트남인 공동체들에 귀환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요구해왔다. 예를 들면, 2003년 1월 정부는 비엠키우가 고국에 되돌아와 베트남 국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베트남 국가의 ‘대단결’(đại đoàn kết)을 이루게 하여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였다. 2004년 3월에는 중앙정치국이 “제36호 의결”(Resolution 36)을 발표하여 베트남 교포가 고국에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며 모국의 발

전에 기여하도록 장려한다는 새로운 정치적 입장과 정치적 레토릭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였다(Chan and Tran 2011). 이 의결에 따라서 각 지방에서 사업을 등록하여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허가하고 토지를 비롯한 자산 구매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5년간 비자 면제 조치를 하는 등 비엠키우를 위한 수많은 우대조치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비엠키우는 확대된 상상의 ‘국민 전체’ 혹은 ‘민족 전체’인 베트남인 혈육으로서 ‘비엠키오’의 부분이 되었다(Chan and Tran 2011).

정책과 공식적인 입장의 전환 이전에 비엠키우는 국내 베트남인들과 정부 모두에게 실제로 반대세력으로 의심받거나 차별받는 존재였다. 이미 1990년대에 귀국하였던 사람들은 조롱받는 경우도 많았고, 귀국하는 것에 대해 금지나 제한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비엠키우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점차 빠르게 변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공적인 담론에서 이들을 나라의 경제적 영웅으로 묘사하는 모습이 분명해졌다. 중앙정부나 여러 기관에서 ‘베트남 모국’에 큰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포상을 하는 일을 흔하게 볼 수 있다. TV프로그램에서 비엠키우의 성공스토리를 방영하고 다양한 미디어에서 이들에 대한 우호적인 소식을 빈번하게 다루고 있다. 해외 베트남 교포들의 귀국을 더욱 촉진하는 캠페인이 2010년 이후 공산당과 베트남 중앙정부의 주요 과업 중 하나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분명히 경제적인 목표를 위한 실용적인 의도를 지닌 것이다. 내가 만난 비엠키우 중에는 여전히 정부의 의도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회의적인 경우도 있었으나 이러한 우대 정책이 이들의 귀국을 활성화시켜온 것은 분명하다.

2. 화인 비엠키우의 이야기: 탈출에서 귀환까지

귀국 비엠키우 중에는 화인 비엠키우가 포함되어 있다. 화인 비엠키우는 그들의 조상이 서로 다른 시기에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주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베트남에 체류한 사람들이다. 보트피플 난민들 외에도 홍콩이나 대만의 가족 연계망을 활용해 중전 전에 이미 몰래 탈출한 사람들도 많았다. 보트피플 난민들과 달리 이러한 사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1970년대 초반 홍콩과 베트남 사이를 화물선이 빈번하게 오갔다. 많은 베트남화인들이 이 시기 이러한 배를 타고 밀항을 하였다. 한 면접자가 이렇게 몰래 배를 타고 탈출하는 것을 광둥어로 ‘깜쑹’(kam chong), 즉 ‘화물칸 밀항’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1975년에 처음 홍콩에 도착한 보트피플 난민들과 함께 이들 밀항자 중 많은 사람들이 1976년에 홍콩에서 신분증을 발급받게 된다. 홍콩 정부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약 5천명에 달했다고 한다 (Chan 2011: 7). 이런 식의 밀항을 통해 홍콩에 온 사람이 최소한 1만 명은 넘는다고 하는 이도 있었다.

홍콩 해안에 일단 도착하면 인신매매범이 옷을 갈아입고 홍콩에 친척과 접촉하게 될 때까지 며칠 숨겨주었다. 이 시기에는 베트남에서 홍콩으로 가는 배가 매달 최소 한 대는 있었다. 한 배마다 백 명에서 수백 명이 화물칸에 몸을 숨기고 밀항하였다. 이렇게 떠난 사람이 최소 만 명은 될 것이다(Tho 씨).

다음에는 면접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호아 비엠키우들이 어떻게 자신을 화인 디아스포라와 베트남 디아스포라 모두와 관련시키게 되는지 살펴보겠다. 베트남 귀환 화인난민의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정체성의 다면적인 모습을 기술하고자 한다. 기술된 사례에 대한 분석적인 논의는 결론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사례 1> 떠도는 이산가족

쑤언(Xuan)씨는 1957년에 쩌런에서 태어났다. 쩌런은 사이공의 옛 이름이지만 지금은 호치민시의 대표적인 중국인타운이다. 그의 집안은 원래 대만에서 왔다. 1930년대에 그의 할아버지가 모든 가족을 데리고 대만을 떠났다. 그때 이후로 가족은 ‘4번의 이별과 5번의 이산’의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가족들 각자 서로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 각각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로 갔다. 그의 아버지는 가족을 데리고 베트남에 왔고 1930년대 조선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9남매가 있고 모두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그가 대학 일학년일 때 사이공이 함락되었다. 당시 그가 드물게 드럼 연주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에서 그를 ‘혁명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를 만들도록 군대에 파견하였다. 1976년 초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는 밴드와 함께 연주를 하였고, 한 번 공연에 2달러씩 버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얼마 후 그는 몇 주 동안 노동캠프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화인 청년 지도자 집단에 배치되었다. 1981년에 가족 모두가 대만으로 돌아갔다. 그의 한 형이 1960년대에 대만대학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에도 줄곧 대만에서 살고 있었다. 그 형과의 연결로 인해 어렵지 않게 대만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그는 대만에서 다시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대만에서 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1996년 마침내 베트남으로 되돌아왔고 대만과 베트남 간 무역업을 시작하였다.

쑤언씨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하자, 그는 “우리는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 어디 한 곳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다소 흥분한 듯이 대답하였다. “우리 가족은 원래 대만 출신이며,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진먼(Jinmen) 출신이다. 우리 집안이 1930년대 베트남에 처음 도착했을 때 우리는 ‘화교’(huaqiao)가 되었다. 1980년대 우리가 대만으로 돌

아왔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외국 화교’(waiguo huaqiao)라고 불렀다. 이제 나는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왔고 사람들은 나를 비엣끼우라고 부른다.”

지금은 ‘귀국한 해외 베트남 동포’로서 비엣끼우로 불리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냐고 되물자 그는 답했다.

나 같은 사람들에게 정체성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를 비엣끼우라고 하니 나는 비엣끼우다. 지금 베트남에서 나를 다르게 부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나게 다른 여러 상황을 겪어왔다. 우리 인생은 고요한 바다와 다르다. 서로 다른 제도와 정부체제를 겪었다. 한때 떠났으나 되돌아갔고 또 귀환하였다. 우리는 다시 떠날 수도 있고, 또 다른 환경에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다. 지금 뭐라고 불리든 그것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엣끼우라고 하니 나도 비엣끼우라고 한다.

<사례 2> 중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쥘(Trung)씨는 베트남 화인부부의 아들로 사이공에서 태어나 살다가 1974년에 대만으로 유학을 갔다. 이듬 해 사이공이 함락되어 할 수 없이 대만에 눌러앉아 살다가 1980년대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베트남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관한 이야기가 퍼지고 있던 1994년에 베트남으로 처음 귀환했다. 당시 베트남은 자신을 ‘외국인 투자자’로서 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여전히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이고 허가조건이 까다로웠다. 베트남 현지에서 사는 지인의 이름으로 회사를 등록해야 했다. 사업등록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재정적인 곤란을 겪게 되었다. 결국 사업에 실패하고 1996년에 홍콩으로 갔다. 그곳에서 미국과 무역업을 하다가 1998년부터 중국 광저우를 오가며 홍콩-중국 간 무역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홍콩에 있을 때 어떤 사업도 나를 정착시키

지 못했다”고 했다. 2000년에 그는 두 번째로 베트남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였다. 그 해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더욱 개방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고 많은 일들이 이전보다 유연해진 것으로 느껴졌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가 된 것은 비엠키우 투자자들이 자신의 명의로 현지에서 바로 사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었다. 그는 최근 10년 동안, 베트남에서 태어난 중국인들과 외국에서 돌아온 베트남인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이 변화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이제 100% 우리 이름으로 사업을 등록할 수 있다. 나는 여기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등록에서 ‘비엠키우’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는 홍콩과 광저우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해외 중국인’ 증명서를 사용했었다며 홍콩에 있을 때 중국인 파트너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이 베트남에 두 번째로 귀환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광저우처럼 완전히 낯선 장소에서 무엇이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시작하면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이 든다. 나는 베트남의 환경과 문화에 친숙하다. 베트남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여기서서는 제로 상태에서 처음부터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없다. 사람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새로운 통로를 찾는 것이 훨씬 쉽다.

그는 자신이 ‘베트남의 중국인 비엠키우 사업가’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만과 미국에 사는 동안 나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항상 내 소속감은 베트남에 있었다. (베트남) 사람들이 네게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비엠키우라고 답한다. 나는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도 비엠키우이고 비엠키우로서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혈통적으로는 중국인이다. 따지고 보면 홍콩이나 대만에서 온 중국인과 혼혈일 수도 있다. 사실 얼마나 정확하게 중국인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사람들은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 내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내가 중국인 사업가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광둥어로 대화한다. 먹는 것과 외모는 중국인이다. 나는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정체성을 밝히기도 하지만 나는 베트남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여기 베트남에서 자랐고 베트남과 친밀함을 느낀다. 여기에 친구와 동창과 친척들이 있다. 내게 정체성의 문제는 너무 복잡하다. 베트남에서 중국인 정체성은 이미 그 자체가 복합적이고 복잡하다. 떠났다가 귀환한 우리 같은 사람의 정체성은 더욱 복잡하다. 내 아이덴티티는 다른 비엠키우보다 훨씬 복잡하다. 나는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다.

<사례 3> 화교와 비엠키우 사이를 오가며 모호한 이름의 존재
 럼(Lam)씨는 ‘화물칸 밀항자’였다. 그의 가족은 증조부 세대 즈음에 중국 광저우에서 이주하여 줄곧 남부 베트남에서 살아왔다. 그는 1972년 베트남을 떠나기 전까지 어머니와 함께 사이공에 거주하며 전기 설비 노동자였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고민 끝에 계속 홍콩으로 가자고 하여 결국 홍콩행을 결정하였다고 했다. 홍콩에 도착한 후 집을 구하기 전에 친척 집에서 지냈다. 당시 홍콩에 이주민이 넘쳐나는 상황이었고, 밀항을 한 사람들도 대개 친척의 도움을 받는 일이 흔하였다. 홍콩에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서 취업자격 신분증이 없더라도 직업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체류자격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겪어야 했다. 그도 취업자격 신분증이 없는 상황이어서 홍콩인 사장에게

차별을 당해야 했다. 월급도 실제 약속한 것의 절반 밖에 받지 못했다. 몇 년 동안 이곳저곳의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다가 홍콩 여자를 만나 결혼하였고, 세 명의 자녀를 얻었다. 점차 홍콩 생활에 적응하면서 번 돈을 절약하며 저축하여 투자할 수 있을 만큼 모았다. 1979년 중국이 개방한 후 그는 조상의 고향인 광저우에서 공장을 열 기회가 생겼다. 광저우에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 중국 정부는 자신과 같은 홍콩출신 ‘화교’ 투자자를 ‘애국적인’ 해외 동포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그는 자본이 부족한데다가 경영 실수로 인해 곧 탕진하고 말았다. 광저우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다시 홍콩으로 돌아왔을 때는 처음 홍콩으로 밀항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거의 무일푼인 상태에서 다시 출발해야 했다. 홍콩에서 부부가 함께 일하며 다시 열심히 돈을 모았다. 1989년 럽씨는 처음으로 단기 비자를 얻어 혼자서 베트남을 방문했다. 몇 달 후 두 번째 방문 때에 옛 친구들은 만나면서 그는 베트남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호치민시의 옛 친구들과 협력하여 여행업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홍콩을 오가며 무역업도 시작했다. 2014년에 만났을 때 그는 여러 대기업 생산 제품에 붙이는 부착물이나 상표를 하청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25년 동안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베트남에서 보냈고 이로 인해 홍콩의 가족과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는 호치민시에 거주하던 화인과 재혼하여 아들을 하나 낳았다.

베트남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조국에 돌아와 자본을 투자하는 ‘애국적인 홍콩출신 화교 투자자’ 중 한 사람이었다. 당시 중국은 새로운 개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였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그는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영웅적인’ 해외 비엠키우 사업가 중 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는 말한다. “나는 중국에서는 호아끼우였고, 베

트남에서는 비엠키우다.” 그는 중국에서 자신 소유의 첫 사업 시도에 실패하였으나 베트남에서는 성공했다. 그는 비록 중국인이지만 그의 성장 경험과 기억은 모두 베트남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이 고향처럼 편하고 익숙하다고 했다.

그에게 호아끼우에서 비엠키우로 변화된 것에 대한 감회를 물었다.

인생이 그렇다. 때에 따라 조건도 달라진다. 환경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 우리도 따라 변했다. 환경에 적응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떤 정체성을 갖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 삶에 더 편리하며 사업과 돈벌이에 더 좋은 지이다. 다른 방도가 있었겠나? 그 때 내가 베트남을 떠나지 않았으면 아마 죽었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일 베트남이 개방정책을 시작할 무렵 더 일찍부터 베트남에 와 있었다면 이미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놓쳤다. 전쟁 때문에 내 세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다.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다.

한편, 1978년 중국과 베트남 관계가 악화된 후 수년 간 북부베트남을 떠나야 했던 화인들도 많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고 현지화된 베트남 국민이자 호아 소수민족으로 ‘눌러 앉아’ 있어야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귀환 난민이 받고 있는 국가적인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화교’와 ‘화인’ 사이를 오가는 정체성이 애매한 사람들이다. 필자가 하노이에서 만난 부(Vu)씨의 이야기에는 냉소적인 부러움이 스며있었다. 그는 베트남에서 나고 자라 한 번도 베트남을 ‘탈출’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1979년만 해도 하노이 구시가지 중 몇 개 거리는 중국인들로 가득 찼었지요. 모든 사람들이 떠났어요. 과거에 이 거리에서 닭고

기나 오리구이를 피는 중국인 가족이 많았어요. 삶은 돼지를 넣은 국수도 팔았고요. 1979년 이후 우리 가족만 여기에 남고 거의 모든 중국인이 도망갔어요. 보세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돌아오고 있어요. 영국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홍콩, 캐나다 등등. (옛 지인을) 다시 만나게 되어 좋아요. 우리는 가끔 중국어도 쓰고 주로 베트남어로 대화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비엠키우여요 나는 여전히 호아끼우고요~!(Vu, 1958년생).

<사례 4> ‘자유’와 ‘우정’ 사이에서

팜(Pham)씨 부부는 독일에서 거의 30년을 살다가 은퇴를 위해 베트남으로 돌아왔다. 귀환 후 곧 호치민시 1군에서 식당을 개업했다. 1960년대 청소년기부터 친하게 지내던 베트남 화인 친구들을 다시 만나 합작 투자하여 지금은 여러 곳에 식당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팜씨 부부는 1973년에 결혼하였다. 팜씨 가족은 식당업과 함께 해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며 꽤 큰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이공 함락 후 도매업 대부분이 국유화되어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었고, 남편은 재교육캠프에 여러 차례 들어가야 했다. 1981년 남편 혼자 베트남을 탈출하여 태국의 난민캠프에서 2년 간 지내다가 서독으로 갔다. 서독에 정착한 후 팜씨는 곧바로 가족과 재결합을 신청했다. 1984년 아내가 네 아이를 데리고 독일로 이주하여 가족이 모두 재결합하였다. 그는 탈출 후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였고, 1년 동안은 고기도 먹지 않고 가족의 건강과 행운, 그리고 빠른 재결합을 위해 기도했다고 했다. 1985년 아내는 독일에서 다섯째 아이를 출산했다. 부인은 독일에서 다섯 명의 자녀를 돌보고 키우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남편은 서독에서 홍콩 이주민이 주인인 중국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그 식당 주인은 홍콩의 ‘신 영토’(New Territories)에서 이주한 사람이었다. 팜씨 부부의 설명에 따르면, 1960년대와 1970년대

특히 ‘신 영토’ 출신 원주민들인 홍콩계 중국인들이 주로 영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거나 중국인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자신들과 같은 베트남 화인들 중 홍콩의 ‘신 영토’ 출신을 독일에서는 ‘광둥계 베트남 중국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광둥어를 구사하여 홍콩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베트남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당 종업원 일을 시작한 몇 년 후 자신이 직접 작은 식당을 개업했다. 부인은 말했다. “참 힘든 인생이었지요. 매일 우리는 오랜 시간 일했어요. 이 때문에 내 건강이 나빠졌어요. 베트남이 개방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바로 베트남으로 돌아오고 싶어졌어요.”

1994년 팜씨 부부는 친구들을 방문하기 위해 처음으로 베트남에 되돌아왔다. 이후 서너 차례 더 베트남을 방문했다. 2007년 부인이 독일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이들은 독일의 사업을 모두 청산하고 베트남에 돌아와 은퇴할 것을 결정하였다. 베트남 귀국 후 어린 시절 친구와 이웃을 찾아 베트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해 의논하였고 마침내 호치민시에서 식당을 개점하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높아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식당에서 직접 일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인건비가 훨씬 적게 들었다. 다섯 명의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어 독일에서 일하고 있으며, 자식들은 아무도 식당 경영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며 웃었다. 부인은 “우리는 자유를 찾아 떠나야 했지만 우정이 있는 곳에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리에우(Lieu)씨는 아버지가 베트남전쟁 종전 후 대만으로 ‘자유’를 찾아 탈출하였다. 그러나 탈출 중에 모든 서류를 잃어버려, 1991년이 되어서야 가족과 재결합 신청이 가능해졌다. 리에우씨는 부친을 만나기 전에 이미 호치민시에서 화인 남성과 혼인하여 자녀가 둘 있었다. 베트남이 이미 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그녀의 남편은 대만으로 이주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리에우는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대만으로 이주를 원했다. 결국 남편을 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대만으로 이주하였다. 남편은 다른 화인들과 유사하게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 리에우씨는 남편도 대만으로 이주할 것을 계속 설득하였으나, 결국에는 1990년대 후반 자신이 베트남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대만에서 생활은 무척 지루하고 심심했어요. 친구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TV만 보았지요. 나는 할 일이 없었어요. 베트남에서는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서로 다시 만나 너무 행복합니다.

팜씨 부부와 같이 리에우씨도 자유를 찾고 외국인 여권을 얻기 위해 베트남을 떠났지만 다시 귀국하여 좋은 친구들은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했다.

V. 결론

이 연구는 소위 ‘원래 호아 출신의 비엠키우’(Việt kiều gốc Hoa)를 베트남의 오랜 다종족 다문화 역사에서 ‘호아’라고 불렀었던 중국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적인 맥락에 위치시켜 고찰하였다. 현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난민들에 대하여 ‘혼종 디아스포라’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종족에 근거한 디아스포라라는 보다 넓은 맥락 내에서 이들의 정체성 변화를 분석하는데 적절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원래 호아출신 비엠키우’는 중국인 디아스포라와 베트남인 디아스포라 양쪽 모두의 일부이다. 그들이 이주와 귀환이주는 서로 다른 시기, 서로 다른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베트남 화인의 소속감은 조상의 고향인 중국에 대한 문화적

상상 혹은 귀속감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그들의 실제 생활 경험과도 연관되어 있다. ‘혼종 디아스포라’ 개념은 귀환 해외 베트남화인들의 다면적인 이주 경로와 복합적인 생활경험에 대한 분석에 적합한 틀을 제공할 수 있다.

해외 베트남 화인의 귀환이주 현상은 여타 베트남 이주민의 귀환과 같이 베트남 국가의 우호적인 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베트남 화인들은 인도차이나 전쟁 전후 그리고 그 이후 순환 혹은 재순환의 이주 과정을 거치면서 디아스포라로서 역동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 뿐 아니라 이러한 재순환의 과정에서 이주민들 스스로의 정체성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출신 국가에서 이주민에 대한 태도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Chan and Tran 2011).

1970년대만 해도 화인들은 베트남 정부의 시각에는 ‘문제가 많은’ 인구집단으로 보였다. 많은 화인들이 베트남의 정치적 혼란을 피해 떠났다. 1990년대 이후 그들은 환영받는 베트남동포의 일부가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이들의 귀환이 중국인에서 베트남인으로 변화되도록 해주었다. 즉, ‘호아끼우’에서 ‘비엠키우’로 변화되게 해주었다. 베트남인 화인들이 베트남으로 돌아오는 것에는 경제적 이윤추구를 하는 실용적인 면과 고향의 가족과 친지를 만나 정서적 재결합을 하는 감정적인 면, 두 가지 차원이 모두 있지만 ‘비엠키우 정체성’을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이나 재정착을 확실하게 유리하게 해준다. 이러한 정체성 변환이 많은 일에 편리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해 만난 사람들은 정치적 격변과 전쟁의 시기에 ‘원래의 고향’인 베트남을 떠났던 난민 이주자들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의 정치적 변화와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그들이 재빠르게 되돌아가는 이주를 하게 되었다. 그들이 되돌아와서 투자를 하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 베트남 정부로서는 그들 모두가 애국적인 ‘비엠키우 바오’로 간주되며 환영한다. 그들이 베트남의 화인으로 돌아옴으로

써 커다란 노스텔지어를 느낀다. 가령, 대만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없었던 한 여성은 이주민이 되어 몇 년 만에 베트남에 되돌아왔다. 베트남에 돌아와서 그녀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호치민에서 화인들의 식당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베트남으로의 귀환이 행운을 만드는 새로운 기회를 잡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또한 그들이 자라났던 베트남에 대해 친근감과 함께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감정을 느낀다. 그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중국인으로 간주되지만 그들의 소속감은 베트남에 머물러 있다. 귀환이주를 통해 사람들은 제2의 직업과 제2의 고향을 만들게 된다. 어떤 귀환 화인은 중국에서 사업에 실패한 후 50대의 나이에 불구하고 현지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있었던 덕분에 새로운 직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홍콩의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되었고, 호치민에서 제2의 가족을 꾸리게 되었다고 했다. 어떤 이는 처음 베트남과 중국에서 사업 시도가 실패하였으나, 두 번째로 베트남에 돌아올 것을 결정하였고 지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결국 사업을 성공적으로 재개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해외 중국인들 사이에 고집스럽게 유지되는 중국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국인 디아스포라에 관한 연구와는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다. 베트남 귀환 화인 난민들의 사례는 오히려 지난 수십 년 간 베트남의 경제적 변화와 정치·사회적 상황에 근거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중국과 중국인 정체성은 귀환한 화인 출신 비엠키우 정체성의 뒤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일 수 있으나, 베트남과 베트남에서 이들의 삶의 경험은 분명히 무대 전면에 있는 것이며, 그들의 이동과 고통, 상실과 획득의 이유이다. 그들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보다 나은 미래와 생활에 대한 희망으로 베트남을 떠나면서 소수종족으로서 하등의 베트남인 정체성을 버렸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아시아의 새로운 정치경제 내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희망으로 베트남으로 귀환한 것은 그들에게 베트남 정부가 부여하는 ‘권위 있는’ 베트남인 정체성을 얻도록 해주었다. 이러한 이동의 사이클과 정체성 변환 과정은 중국인 디아스포라에서도 독특한 것이다.

이들이 베트남을 빠져나가고 또 되돌아가기 위한 지난한 투쟁과 고생한 스토리를 듣고 있으면서 나는 이러한 모든 경험이 동남아시아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특히 서로 다른 중국어 방언과 한두 개 동남아시아 언어를 포함하여 서너 개 혹은 그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독특하게 나타나는 경험이라는 것이다. 화인 출신 비엠키우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곤경으로 인해 베트남을 탈출했던 수백만 명 중에 일부이다. 다른 해외 베트남인들처럼 그들도 고국의 개방 이후 되돌아와서 베트남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지위의 변환게임에 참여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화인 비엠키우로서 이들의 정체성은 다른 해외 베트남인 귀환자보다 훨씬 복잡적이다. 이들을 30~40년 전에 모험을 하도록 한 것은 이들의 중국인 종족 배경이었다. 그들이 돌아오면서 정체성이 미묘하게 변화한 것이었다. 베트남에 살면서 그들은 주로 현지의 화인, 그리고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화인들이나 화교 등 여타의 ‘중국인’과 주로 섞이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이 정체성 의식은 두 개의 ‘고향’ 혹은 ‘고국’ 사이를 진동하는 것으로 남게 되고, 그들 중에 어느 곳에서도 그들은 정착의 상태가 아니었다. 이러한 복합적 디아스포라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유일한 가능한 방법은 하나의 단일한 종족성에 기초하지 않고 변화하는 초국가적인 정체성에 의존하는, 묶여있지 않은 종류의 디아스포라를 인정하는 것일 것이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이동과 정체성의 변동은 국가 정책의 변화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지역 혹은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라는 보다 넓

은 맥락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베트남을 떠난 베트남 화인들은 아마도 그렇게 짧은 기간 후에 베트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들의 강제적 이주와 자발적인 귀환은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정치, 경제적 상황의 엄청난 변화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강제적 이주 당시 이들의 정체성에 묻어 있던 때와 얼룩은 자발적 귀환의 과정에는 어디론가 말끔히 씻겨 나가고 없었다. 약간 도발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것을 ‘정체성 세탁’(identity laundering)이라고 했던 찬(Chan 2013)의 입장에 공감이 된다. 한때는 베트남으로부터 부정적으로 소수자의 딱지가 부여되었던 사람들이 ‘경제적 영웅’이 되어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낙인이 되어 탈출과 도피의 원인이 되었던 정체성이 ‘씻겨 나가고’ 귀환의 결과 새롭고 깔끔하고 영광스럽기까지 한 ‘비엠키우’ 혹은 ‘교포’라는 이름표가 부여된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현재. 2010. “베트남 화인사회의 형성 과정, 그 역할과 특징에 관한 고찰.”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25: 193-235.
- _____. 2012. “17~19세기 초 화인의 베트남 남부로 이주와 사이공의 형성.” 『東南亞研究』 22(1): 101~26.
- 전경수. 1998. “베트남 화인사회의 종족성과 신소수민족론.” 『비교문화연구』 4: 217-94.
- 조흥국. 2005. “동남아 화인의 역사와 정체성.” 『동남아선교뉴스레터』 40.
- 최호림. 2011. “남부 베트남과 미국문화의 유산: 통일 후 인식과 비판, 1975~81년.” 강희정 편, 『외부세계와 동남아: 전통, 식민

- 주의, 모더니티의 시각』. 서울: 이매진. 153-191.
- _____. 2012. “베트남의 소수종족과 국가: 종족분류체계 및 종족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지방사와 지방문화』 15(1): 527-67.
- _____. 2015. “탈사회주의 상황의 베트남 난민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5(1): 105-142.
- _____. 2016. “동남아의 중국인과 중국문화.” 박장식 외, 『동남아 문화 예술의 수수께끼: 다양성 vs 통일성』. 서울: ASEAN-Korea Centre. 57-71.
- 최병욱. 2000. “19세기 전반 베트남의 소수민족 정책.” 『동남아시아 연구』 9(1): 127-63.
- 하순. 1998. “베트남 거주 중국인 종족집단에 관한 연구.” 『아시아지역연구』 1: 65-87.
- Amer, Ramses. 1991. *The Ethnic Chinese in Vietnam and Sino-Vietnamese*. Kuala Lumpur: Forum.
- _____. 2011. “The Boat People Crisis of 1978-79 and the Hong Kong Experience Examined through the Ethnic Chinese Dimension.” Yuk Wah Chan (ed.), *The Chinese/Vietnamese Diaspora: Revisiting the Boat People*. New York: Routledge. 36-51.
- Braziel, Jana Evans and Anita Mannur. 2003. “Nation, Migration, Globalization: Points of Contention in Diaspora Studies.” Jana Evans Braziel and Anita Mannur (eds.), *Theorizing Diaspora: A Reader*.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1-22.
- Chan, Yuk Wah. 2011. “Revisiting the Vietnamese Refugee Era: An Asian Perspective from Hong Kong.” Yuk Wah Chan (ed.),

- The Chinese/Vietnamese Diaspora: Revisiting the Boat People*. New York: Routledge. 3-19.
- Chan, Yuk Wah. 2013. "Hybrid Diaspora and Identity-Laundering: A Study of the Return Overseas Chinese Vietnamese in Vietnam." *Asian Ethnicity* 14(4): 525-541.
- Chan, Yuk Wah and Thi Le Thu Tran. 2011. "Recycling Migration and Changing Nationalism: Vietnamese Return Diaspora and Reconstruction of the Vietnamese Nationhood."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7(7): 1101-1117.
- Chen, King C. 1987. *China's War with Vietnam, 1979: Issues, Decisions, and Implicatio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Hoover Institution Press.
- Chen, Min. 1992. *The Strategic Triangle and Regional Conflicts: Lessons from the Indochina Wars*.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 Chivallon, C. 2011. *The Black Diaspora of the America: Experiences and Theories out of the Caribbean*. Kingston: Ian Randle Publishers.
- Gilroy, P. 1997. "Diaspora and the Detours of Identity." Kathryn Woodward (ed.), *Identity and Difference*. London: Sage. 299-346.
- Gosling, Peter L. A. 1983. "Changing Chinese Identities in Southeast Asia: An Introductory Review." Linda Y. C. Lim and L. A. Peter Gosling (eds.), *The Chinese in Southeast Asia (Vol. 2)*. Singapore: Maruzen Asia. 1-14.
- Haines, David. 2011. "Rethinking the Vietnamese Exodus: Hong Kong in Comparative Perspective." Yuk Wah Chan (ed.), *The*

- Chinese/Vietnamese Diaspora: Revisiting the Boat People*.
New York: Routledge. 20-35.
- King, Russell (ed.). 1986. *Return Migration and Regional Economic Problems*. London: Croom Helm.
- Li, Tana. 1999. "Vietnam." Lyn Pan (ed.), *The Encyclopedia of The Chinese Overseas*. Surrey: Curzon Press. 228-33.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Vietnam. 2012. "Review of Vietnamese Migration Abroad." Consular Depart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Viet Nam. http://eeas.europa.eu/archives/delegations/vietnam/documents/eu_vietnam/vn_migration_abroad_en.pdf (검색일: 2017.03.02)
- Pham, Andrew T. 2010. "The Returning Diaspora: Analyzing Overseas Vietnamese (Viet Kieu) Contributions toward Vietnam's Economic Growth." DEPOCEN Working Paper Series No. 2011/20.
- Potter, R. 2005. "Young Gifted and Back: Second-Generation Transitional Return Migrants to the Caribbean." *Progress in Development Studies* 5(3): 213-36.
- Robinson, W. Courtland. 1998. *Terms of Refuge: The Indochinese Exodus and the International Response*. London & New York: Zed Books Ltd.
- Seol, Dong-Hoon and J. John Skrenty. 2009. "Ethnic Return Migration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n Chinese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Ethnicities* 9(2): 147-74.
- Suryadinata, Leo. 1987. "Ethnic Chinese in Southeast Asia: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1(1): 135~151.

- _____. 2007. "Introduction." Leo Suryadinata (ed.), *Understanding the Ethnic Chinese in Southeast Asia*. Singapore: ISEAS. 1-7.
- Tan, Chee-Beng. 2004. *Chinese Overseas: Comparative Cultural Issues*.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TCTK (Tổng Cục Thống Kê, General Statistics Office). 1999. *Dân số dân tộc Hoa tại thời điểm 1/4/1999 phân theo giới tính* (The Number of the Two Sexes of the Ethnic Chinese Population on 1/4/1999). Hanoi: General Statistics Office.
- Tran, Khanh. 2001. "An Analysis of Population Study of Vietnamese Chinese." *八卦僑刊* 51: 59-64.
- Vertovec, Steven. 2009. *Transnationalism*. New York: Routledge.
- Wang, Gungwu. 1959. *A Short History of Nanyang Chinese*. Singapore: Eastern University Press.
- Yeung, Henry. 2004. *Chinese Capitalism in a Global Era: Towards Hybrid Capitalism*. New York: Routledge.

인터넷 자료

"Overseas Chinese" https://en.wikipedia.org/wiki/Overseas_Chinese
(검색일: 2015.11.02)

(2017.04.23. 투고, 2017.05.15. 심사, 2017.05.16. 게재확정)

<국문초록>

베트남 화인의 귀환이주와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최 호 림

본 연구는 난민으로 떠났던 베트남 화인들이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오거나 재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인식한 바에 초점을 두고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변환 과정과 귀환이주의 역동성을 고찰한 것이다. 대개 1970~80년대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베트남을 탈출하였던 화인 중 다수가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오고 있다. 베트남 화인 이주민의 귀국 현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베트남을 떠날 때는 대부분 ‘호아’(Hoa) 또는 ‘호아끼우’(Hoa Kiều)로 불렸으나, 베트남으로 돌아올 때는 다른 베트남 출신 귀국자들과 동일하게 베트남 해외동포라는 의미의 ‘비엠키우’(Việt Kiều)로 불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베트남 정부의 ‘귀국 동포 우대정책’의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다. 비록 한때 이들에게 부여된 ‘중국인’ 정체성으로 인해 파도가 거센 바다에 목숨을 맡기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였으나, 지금은 이러한 우대정책과 함께 이들이 ‘베트남인’ 정체성을 부착하고 ‘고국’ 베트남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화교’에서 ‘비엠키우’로 정체성 변환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또한 중국계 베트남 이주민의 귀환 현상에는 복합적인 정체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한마

116 동남아시아연구 27권 2호

디로 ‘혼종 디아스포라’(hybrid diaspora)라고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진다.

주제어: 베트남, 화인, 귀환이주, 혼종 디아스포라, 정체성 변환

<Abstract>

Return Migration and Identity Shifting:
A Case Study of the Ethnic Chinese Refugees in Vietnam

CHOI Ho Ri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identities shifting experiences of the ethnic Chinese refugee migrants who have returned to Vietnam. Their complex and hybrid identities as diaspora is an analytical and empirical subject for this study. Since the Vietnamese government implemented the renovation (*đổi mới*) policy in 1986, the number of overseas Vietnamese returning to Vietnam for visit, work, investment and retirement has been increasing. Among the returnees, many are ethnic Chinese, as there were many Chinese Vietnamese in the Vietnamese refugee diaspora from Vietnam during the 1970s and the 1980s. When they left Vietnam they were called ‘the Hoa’ (Chinese) or ‘Hoa kiều’ (overseas Chinese). When they returned, however, they were recognised together with all other returnees into the category of Việt kiều (overseas Vietnamese). Although their ‘Chinese’ identity had once made them to risk their lives, their ‘Vietnamese’ identity brought them back to Vietnam at other turning points in their lives. The shifting identity of these returning Chinese Vietnamese has

118 동남아시아연구 27권 2호

produced dynamic and complex migration stories and an intriguing category of hybrid diaspora.

Key Words: Chinese Vietnamese, Overseas Vietnamese, Return Migration, Hybrid Diaspora, Identity Shift